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4.11(월) ~ 2022.4.15(금)

제공일시 2022 04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2.4.11(월) ~ 2022.4.15(금)

제공일시 2022 04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입김 세진 글로벌 연기금..주총 안건 2개 중 1개는 반대

- 글로벌 연기금들이 올해 주요 기업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진 비율이 2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함
-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꼽히는 NBIM(노르웨이중앙은행투자관리청)이 가장 많이 투자한 국내 50개 기업 대상 정기 주총 의결권 행사 내역 분석 결과, 반대표 비율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함
- 2020년 4.35%(391건 중 17건)에서 12.28%(391건 중 48건)에 달함. 유럽내 3위 연기금인 PGGM(네덜란드 사회보장기금)은 70개 종목 분석결과 2020년 20.4%, 올해는 47.89%로 두 배 이상 뛰었으며 가장 많이 반대표를 던진 안건은 사외이사 및 사내이사 선임이었음
- 특히 기업 총수의 이사 선임에 회의적 시각을 보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사내이사 선임 등을 모두 반대했으며, 그 외 재무제표 확정안건도 문제 삼아 앞으로 글로벌연기금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경제 2022.04.18.) 이슬기 기자
<https://www.koreajoongnaeng.com/article/newspaper/013/000487130?date=20220418>

2. '기업 옥죄는 규제' ILO 협약 발효 초읽기

- 문재인 정부에서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발효가 다가오면서 국내 산업 현장에 불려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세계에서는 노사정 간 충분한 의견조율과 합의 없이 ILO핵심 협약이 발효되면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며 국내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 경총은 노동계가 노사 관계 문제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해 국제 이슈로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과, 노조법 추가 개정 지양, 사업장에서 핵심협약의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함

(매일경제 2022.04.18.) 김희래 기자
<https://www.mk.com/news/article/newspaper/013/000485130?date=20220418>

3. SBTi, 은행 및 투자자의 넷제로 표준 발표

- 금융기관의 넷제로 약속 설정은 급증하는 반면, SBTi(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정의와 액션플랜이 크게 달라서 목표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제 영향을 비교하거나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비판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에 관한 넷제로 표준을 발표할 예정임
- 금융에 관한 넷제로 표준은 2023년 초 최종 확정될 방침인데, 12일(현지시간) 은행과 투자자를 위한 넷제로 약속 및 표준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에는 1.5도로 제한하는 경로에 모든 금융을 맞추는 것,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금융활동을 통한 잔류배출의 탄소중립화 등 탄소상쇄 내용도 포함

(ESG today 2022.04.12.) Mark Segal 기자
<https://www.esgtoday.com/site/developing-standards-for-net-zero-banks-and-investors-are-commitments/>

1. “기업에 큰 부담” 美 SEC 탄소배출량 공개 논란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증시에 상장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함
- 특히 기업의 모든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정보인 ‘스코프3’도 의무공시 대상에 제한적으로 포함된 것이 특이점임
- SEC의 기후변화 의무공시안에 대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미국 산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규제안 최종 확정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 관측되고 있음

(매일경제 2022.04.13.) 최현재 기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2/04/13/2859>

2. 日 '주주 자본주의'에 등 돌리나...분기보고서 폐지

- 일본 금융청이 상장기업의 분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함
- 현재 상장기업들은 증권거래소 규칙에 따른 ‘결산 단신’ 이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분기 보고서도 제출해 공개해야 하는데, 1분기, 3분기 보고서 공시를 없애 6개월마다 실적과 사업현황을 공개하는 반기보고서 체제로 전환할 계획임
- 일본 정부는 ESG 경영 확산으로 기후변동이나 인권 문제 대응 등 기업의 의무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보 공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 기시다 총리는 분기보고서를 없애면 배당에만 신경쓰는 주주 자본주의를 벗어나 임금인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분기보고서를 폐지하면 경영투명성이 낮아져 해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

(한경글로벌마켓 2022.04.14.) 정영호 기자
<https://www.gmk.co.kr/view/962022041404570071564-1195n>

(연합뉴스 2022.04.14.) 이세원 기자
<https://www.ynhnews.com/finance/article/2022/04/14/364>

3. 美 캘리포니아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퇴출...“친환경차 날개 단다”

- 미국 내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인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함
-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계획으로 모든 신차 판매의 100%가 화석 연료 배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다른 주들도 이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향후 미국에서 내연기관차 퇴출 속도가 빨라지고 친환경 자동차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한스경제 2022.04.14.) 박지은 기자
<http://www.sport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85>

4. 독일,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법 시행

-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기업의 사전 대응이 필요함
- 독일의 공급망 법안은 2023년에 우선적으로 대기업에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 고용 인원이 1000명인 기업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 국내 기업은 독일 내 고용 인원수가 적용 대상 기업의 고용 인원수보다 적다하더라도, 공급업체로서 직접 대상 및 협력하는 기업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함

(KOTRA 해외시장뉴스 2022.04.18.) 조정윤 기자
<http://www.kotra.or.kr/news/articleView.do?idxno=24642>

1. 공정위, '하청업체 기술자료 해외유출' 삼성SDI에 역대 과징금

- 삼성SDI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역대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됨
-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자신이 최대주주인 중국 합작법인과 관련된 회사의 요청을 받고 하청업체인 A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술(운송용 트레이 도면)을 제공함. 운송용 트레이 도면은 다른 사업자 B사가 개발한 것이기에 A사가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닌데도 기술자료로 보호해야 하느냐가 쟁점이 됨
- 하청업체가 직접 개발 기술이 아닌 타 업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보유한 기술이라도 하도급법상 보호 받아야 할 기술자료로 인정된 첫 사례

(이데일리, 2022.4.18.) 조용석 기자
<https://www.nnews.com/article/news/1808180518717?date=20220418>

2. 정보보호 공시 의무 603개 기업 확정...대기업·IDC·플랫폼 망라

- 정보보호 투자, 인력,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이 **603개로 최종 확정**
- 대중견 이상 상장회사를 비롯해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통신사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운영사 등이 포함
- 정보보호 공시 내용으로는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정보보호 인력 현황, 정보보호 관련 인증·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등임

(전자신문, 2022.4.14.) 최호 기자
<https://www.etnews.com/20220414000171>

3. 산은, ESG 투자 가속화...재활용업체 100억대 인수

- KDB산업은행과 유진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성한 ESG 인프라 펀드가 100억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고형 폐기물연료(SRF) 생산 업체 한빛그린환경을 인수**함
- 한빛그린환경은 품질이 좋은 폐플라스틱 등을 골라내 이를 발전자원으로 재가공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산업은행과 유진PE가 **폐기물 처리 가치사슬(밸류체인)의 전 단계에 있는 업체까지 투자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
- 당초 3개 폐기물 처리 업체의 지분 인수를 끝으로 투자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던 인프라 펀드가 영역을 확장해 재투자한 셈이어서 향후 산업은행과 유진PE가 보다 광범위한 인수·합병(M&A)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됨

(매일경제, 2022.4.17.) 문재용 기자
<https://www.nnews.com/article/news/1808180518717?date=20220417>

4. LG전자,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충전' 낙점

-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낙점하고 **전기차 충전 소프트웨어, 기구 설계 및 플랫폼 등의 R&D(연구개발)를 진행 중**
- 기업간거래(B2B) 사업을 담당하는 BS사업본부에서도 최근 전기차 충전 사업 관련한 경력 사원 모집에 나서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사업 계획도 조만간 확정할 것으로 예상
- LG전자가 휴대폰, 태양광 패널 등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대신 미래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만큼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전기차 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며 SK, 롯데정보통신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연이어 충전 사업에 뛰어 들고 있음**

(서울경제, 2022.4.12.) 전희훈 기자
<https://www.nnews.com/article/news/1808180518717?date=20220412>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2.4.11(월) ~ 2022.4.15(금)

제공일시 2022 04 22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가장 지속가능한 주식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어디? 네덜란드가 1위에 올라

- 48개국 증시의 ESG 실상과 탄소배출 리스크를 맵핑화한 자료가 모닝스타 지속가능성 아틀라스 (Sustainability Atlas)에서 12일(현지시각) 발표. 모닝스타 국가지수의 구성요소를 이용, 48개국별 주식 시장의 지속가능성 프로파일을 검토한 자료. 개별국가 내 기업들의 ESG 점수는 서스테이널리틱스에서 산출한 것
- **세계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주식시장을 보유한 국가는 네덜란드**로 드러남. 전자결제업체인 아디엔 (Adyen), 중국 텐센트의 대주주이기도 한 **IT기업 프로수스(Prosus), 네덜란드 대표 반도체기업인 ASML 등을 보유한 덕분**이었음. 아디엔의 경우 JP모건이 2022년 기업결제부문 ‘톱픽’으로 꼽은 기업으로, 우버나 스포티파이 결제 시스템을 담당한 핀테크 기업. ASML의 경우 반도체 설비제조사들 가운데서 기업 거버넌스와 인적자본 부문에서 ESG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모닝스타는 밝힘
- 랭킹 2위는 프랑스를 제치고 핀란드가 차지. 모닝스타는 “글로벌 기술하드웨어산업의 선두주자인 노키아, 보험서비스 분야의 삼포(Sampo)와 같은 기업 덕분”이라고 분석. 3위는 프랑스였는데, 글로벌 명품제조업체인 LVMH, 전력장비 솔루션업체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퍼스널케어 브랜드 로레알 등이 프랑스의 ESG 리더로 손꼽힘
- 주목할 국가는 KBC그룹의 활약에 힘입어 2021년 18위에서 올해 5위로 반등한 벨기에였음. 대만은 5위에서 11위로, 스페인은 2위에서 8위로, 스웨덴은 7위에서 6위로 순위가 바뀜
- **비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지속가능한 시장은 홍콩**이었으며, 전체국가 중 4위를 차지. 보험회사 AIA그룹은 벤치마크 내에서 가장 큰 기업으로, 강력한 매니지먼트 덕분에 리스크 노출이 낮은 것으로 드러남. **하지만 홍콩의 경우 탄소집약도(Carbon Intensity score)가 매우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모닝스타는 밝힘**
- 미국은 48개국 중 16위. 모닝스타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버크셔 해서웨이, 엔디비아 등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리더로 평가되며, 반면 아마존, 메타, 엑손모빌 등에 대한 ESG 리스크 등급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다”고 밝힘
- **아시아 시장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하위권을 기록.** 중국은 48개국 시장 중 39위에 그쳐 지난해에 비해 9단계 하락.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지수 내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두 회사 모두 중간 정도의 ESG 리스크 등급을 보유하고 있음. 한국과 인도는 중국과 함께 맨하위 그룹(4분위)을 차지했으나, 일본과 싱가포르를 3분위 그룹을 차지. 중국건설은행, 도요타, 현대차, 월마 인터내셔널 등은 리스크가 높은 기업들로 분류됐다고 보고서는 밝힘
- 모닝스타는 보고서를 통해 포트폴리오 탄소 리스크 점수를 사용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기업가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등의 서유럽 시장은 가장 낮은 탄소 리스크를 갖고 있었음.** 미국 또한 48개국 중 5위로 탄소 리스크가 낮은 시장으로 분류됐다. 테크놀로지, 소비자, 통신, 금융서비스, 헬스케어, 에너지와 유틸리티 등에서 탄소 리스크가 낮게 나온 덕분

(Morningstar, 2022.4.12) Valerio Baselli
<http://www.morningstar.com/articles/000002/mapping-esg-practices-and-carbon-in-48-countries-stock-markets>